

 보 도 자 료 식품의약품안전처	배 포	2017.8.15.(화)
	담 당 과	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
	과 장	양창숙 (☎043-719-3240)
	사 무 관	문성심 (☎043-719-3248)

식약처, '국내산 계란' 살충제 검출 관련 조치알림

- 부적합 농장 2개소(경기 남양주, 경기 광주) 판매 계란 잠정 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 -
-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 총동원 -

< 살충제 검출 농장공개 >

① 마리농장: 계란껍질에 '08마리' 표시



② 우리농장 '08 LSH' 표시

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최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(17.8.14.)된 사실과 관련하여, 농식품부가 알려진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·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·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·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.

* 살충제 검출 농장 2개소 : 마리농장(경기 남양주, 피프로닐 검출), 우리농장(경기 광주, 비펜트린 검출)

- 이번 검사는 계란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라,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하여, 부적합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식약처는 이날(8.15)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형마트,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·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·검사 중이다.
- 아울러,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 급식소 등에서 사용·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한다.
-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·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.

< 현장 조사 사진 >



유통 중인 위해우려 식용란 수거 현장



유통 중인 위해우려 식용란 수거 현장

계란의 살충제 검출 관련 Q&A

Q1.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인가요?

- (피프로닐)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, 개, 고양이에서의 벼룩,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,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함
- 피프로닐은 국내에서는 코텍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하여 계란의 경우 0.02mg/kg임
- (비펜트린) 닭의 이(와구모)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가 0.01ppm 으로 허용되어 있음

Q2.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?

- 이번에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·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서는 전량 회수·폐기 조치할 계획임

Q3.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 지나요?

-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처벌할 예정임
- (피프로닐 검출)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라 유독·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로써, (벌칙)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(행정처분) 1차 영업소 폐쇄
- (비펜트린 검출)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·규격을 위반한 경우로써, (벌칙)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(행정처분) 1차: 경고, 2차: 영업정지 5일, 3차: 영업정지 10일

Q4. 유럽에서 살충제(피프로닐)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수입되는 계란 및 알가공품은 안전한지?

- (계란) 네덜란드·덴마크·스페인이 수입 허용국가이나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으며,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된 살충제 오염 정보와는 무관함
- (알가공품)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, 벨기에,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, 수거검사 실시후 유통 재개시킬 예정
-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유럽산 닭고기 및 알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등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,
-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상기 3개국의 가공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

Q5.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?

- 국내외 계란 및 닭고기의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,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임